

동아대박물관 소장 영선동패총 출토유물의 검토*

- 1930년대 부산고고회 활동을 통해 본 영선동패총 -

이 동 주**

〈목 차〉

- I. 머리말
- II. 영선동패총의 발견과 당시의 정황
- III. 유물의 유입경위와 내용
- IV. 유물의 편년과 성격
- V. 맺음말

국문요약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물 중 보물 제597호로 지정되어 있는 용기문토기는 부산 영선동패총에서 출토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토기 중에서도 타 사례를 찾기 힘든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일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지만, 당시 조사에 따른 구체적 정황이나 현재 이 유물들의 소장경위 조차 불확실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유물이 출토된 영선동패총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이미 도시화과정에서 훼손되어, 현재는 정확한 위치조차 불확실하다. 1906년 일제에 의하여 조선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부산에 육·해군의 군사시설을 갖추기 위해 절영도를 조차하면서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도면이나 사진촬영에 엄격히 제한을 받았던 관계로 현재 어떠한 형태의 지도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수차에 걸쳐 진행된 매축공사 과정에서 당시의 지형 또한 완전히 변해버린 것도 위치 파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국가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이 유적 출토 유물의 가치는 인정된 셈이지만, 당시의 발굴 경위를 둘러싼 학사적 정황과 유적과 유물의 성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 본 논문은 2012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우리나라 고고학사에서 태동기에 해당하는 일제 강점기 당시, 유적을 발견하고 조사하였던 부산고고회의 활동에 따른 성격과 정황, 그리고 19세기 후반 지도를 통하여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유적의 위치 추정과 함께 동아대학교 소장 경위와 출토 유물의 성격 및 편년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제어 : 부산고고회, 신석기시대, 즐목문토기, 영선동패총

I. 머리말

1933년 10월 30일, 부산철도회관에서 개최된 하마다 게이사쿠(浜田耕作) 박사¹⁾ 환영 석상에서 누군가 가지고 나온 하나의 토기로 인하여 장내는 금세 떠들썩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이 토기는 높이 12.4cm, 구경 16cm 크기의 자그마한 주발형의 토기로, 동체 상부에는 두꺼운 용기대가 부착된 것이었는데, 구연부 한쪽에는 직경 1cm 가량의 注口가 부착된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²⁾ 이 토기는 당시 부산고고회의 핵심멤버였던 오마가리 요시타로(大曲美太郎)가 영도 영선동패총에서 채집한 것으로, 현재 보물 제597호로 지정되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하였던 교토(京都)대학 교수를 역임한 아리미즈 교이치(有光教一)는 이 토기에 대하여 “조선 즐목문토기 중에 가장 진귀한 것으로, 그 문양이나 종류가 매우 드문 것이다.”라고 극찬하였으며, 다음날 경주의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과 사이토 다다시(齊藤忠)와 함께 이 유물이 출토되었던 지점을 답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조사를 통하여 별도 채집한 유물들을 아리미즈가 종합하여 간략 보고한 것이 현재 유일한 자료로 남게 된 것이다.³⁾ 그런데 어떠한 경로를 통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때 아리미즈가 수습 조사한 유물 또한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모두 소장되어 있다.⁴⁾ 당시 아리미즈가 현지를 답사했을 때에는 이미 영선동에 산복도로를 개설하면서 유적은 상당히 파괴되어진 상태였으며, 그 이후 도로조성과 함께 민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파괴되어 지금은 그 위치나 흔적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 용기문토기를 비롯한 동아대 소장 영선동패총 출토 유물들을 중심으로 당시 유적을 발견하고 조사하였던 부산고고회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이들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유적의

1) 浜田耕作박사는 일본 京都大學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유럽 유학을 통하여 경도대학에 고고학강좌를 개설하는 등 1938년 사망할 당시까지 일본의 초기 고고학분야를 개척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2) 有光教一, 『朝鮮釜山府瀛仙町の一貝塚に就いて』, 『人類學雜誌』51-2, 東京人類學會, 1936, 60쪽.

3) _____, 앞의 논문, 1933, 59~67쪽.

4) 有光教一은 해방 이후인 1962년, 강점기 때 조사한 우리나라 전역의 신석기시대 유물을 정리하여 책자로 간행하였는데, 그 중에 이전 보고서에는 없었던 영선동패총 출토 유물의 도면이 제시되어 있다. 이 당시 자신이 조사하여 보고하는 유물이 패전 후, 도일과정에서 어떻게 유실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有光教一,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3, 1962, 63~68쪽.

위치와 출토 유물의 성격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편년을 시도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II. 영선동패총의 발견과 당시의 정황

1. 부산고고회의 성립과 활동

일제 강점기 일본은 조선 민중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함과 동시에 조선의 고유문화를 일방적으로 왜곡·변형시켜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았다⁵⁾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진행된 것이 고적조사사업이며, 주로 경주, 부여, 평양, 개성, 공주 등 고대국가의 중심지에 집중하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방고적보존회가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들 보존회(보승회)는 중앙의 고적조사사업을 보존·지원하는 현지 시행 부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모두 50여 개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

부산고고회의 경우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역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모임을 가진 것이며, 이 모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오오마가리 요시타로(大曲美太郎)이다. 그는 1905년 早称田大學 高等師範部 歴史地理科 출신으로, 한일 고대사의 깊은 관심에 이끌려 무작정 한국의 친척집에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이후 친척의 소개로 부산 세관에 근무를 시작한 후, 구마산세관, 부산세관, 진해세관을 거쳐 1921년에는 조선총독부 專賣局 釜州專賣支局에 근무 중, 1928년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된다. 직장의 이동 과정에서는 각지에서 史談會를 조직하고, 언론과 잡지에 기고하는 등, 적극적인 역사 연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는 무직으로 연구에 전념하던 중, 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래고등보통학교 教諭(교사)로 있으면서 당시 활발한 문화계 조사활동을 벌이던 及川民次郎, 그리고 부산철도호텔 取締役(이사)을 맡았던 宮川肇 등과 조우하면서

5)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 창출』, 서경문화사, 1977; 及川民次郎, 『內鮮公學を基調とした學校經營の理論と實際』, 吉田弘文堂, 1941, 327~328쪽.

6) 이순자, 『1930년대 부산고고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고찰』, 『역사학연구』33, 전남사학회, 2008, 154쪽.

7) 大曲敦, 『父 大曲美太郎と釜山考古會』, 『倭城の研究』5, 日本 城郭談話會, 2002, 133~140쪽.

표1. 부산고고회 성립 이전과 이후의 회원들에 의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

조사자	조사 연도	유적 명칭	조사 내용	문헌
及川民次郎	1927년 발견 (1929년 3월 발굴)	東萊 樂民洞貝塚	도로 개수 및 수전 개간 (藤田亮策·小泉顯夫발굴)	及川1933
辛東燁 及川民次郎	1929년 발견	田浦里貝塚	지표조사	大曲1936
佐山右左吉 大曲美太郎	1929년 발견	槐亭里貝塚	지표조사	大曲1936
及川民次郎 横山將三郎	1929년 발견 (1932년 8월, 7월 발굴)	東三洞貝塚	발굴조사	及川1933 横山1933
及川民次郎 大曲美太郎 有光教一	1929년 발견 (1933년 용기문토기) (1933년 수습조사)	瀛仙洞貝塚	지표조사 (동아대 소장 용기문토기) 수습조사	横山1933 大曲2002 有光1936
及川民次郎	1930년 발견 (1930년 발굴)	貝塚 組合式 石棺墓 等	부산-울산간 철도 부설공사 (及川 옹관 2기 발굴) (小泉顯夫 옹관1기 발굴)	藤田1930
及川民次郎	1932년(?) 발견	青鶴洞貝塚	지표조사	及川1933 横山1933
松尾孝平	1934년 발견	多大浦貝塚	지표조사	大曲1934
?	1934년 발견	大新洞遺蹟	석관묘 발굴(마제석기, 무문토기)	有光1990
及川民次郎 樞本龜次郎	1934년 발견 1935년 발굴	金海貝塚	옹관 등을 발견	樞本1935

1931년 9월 12일에 1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釜山考古會를 창립하게 된다.⁸⁾ 아울러 이 모임의 기관지로 『ドルメン(dolmen)』이라는 잡지도 발간하게 된다.

그런데 大曲美太郎이 주로 역사유적과 문헌 쪽에 관심이 많았던 반면에, 及川民次郎과 같은 이는 고고학에 상당한 관심과 지식을 겸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총유적에 관심이 많았으며, 그곳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주로 수집하였다. 1927년도에 도로 개수와 수전 개착 과정에서 노출된 동래 낙민동패총을 발견하면서,⁹⁾ 京都帝國大學의 藤田亮策교수¹⁰⁾나 총독부에서 파견된 小泉顯夫 등 당대의 가장 뛰어난 고고학자들이 찾아와 조사를 벌이는 등¹¹⁾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다. 1929년에는 진포리패총¹²⁾과 동삼동패총¹³⁾ 등이 발견되는데, 이 중

8) 이순자, 앞의 논문, 2008, pp.155~161. ; 吉井秀夫, 『釜山考古會とその活動について』, 『倭城の研究』5, 日本 城郭談話會, 2002, 142쪽.

9) 及川民次郎, 『東萊貝塚』, 『ドルメン』2-4, 1933.

10) 고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우리나라 신석기연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1948. 『朝鮮櫛目土器の分布に就いて』; 『青丘學叢』2, 1930, 107~122쪽.

11) _____, 『東萊の甕棺出土』, 『青丘學叢』2, 1930.

12) 大曲美太郎, 『釜山の古蹟及遺物』, 教育研究調査物 14, 1936.

동삼동패총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적으로 평가되면서, 그 관심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원 20명 정도의 釜山考古會가 탄생한 것이며, 그 이듬해에는 이 모임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경성제국대학의 橫山將三郎교수와 及川民次郎이 각각 동삼동패총을 발굴하게 된다.¹⁴⁾ 물론 이 과정에서 부산고고회 멤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속에서 이루어진 조사여서 회원들의 분위기를 한층 고무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와 함께 본고의 주제가 되는 영선동패총도 조사 되는데, 지금까지 영선동패총은 浜田俊象씨가 1933년도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¹⁵⁾, 본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929년 及川民次郎에 의하여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⁶⁾ 이 외에도 왜성을 비롯한 성곽의 연구나 도자기, 기와, 낙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람회나 강연회, 연구발표회 등이 열렸으며, 기관지도 꾸준히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회는 1936년까지 활발하고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그 이후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이 194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이들에게 부산철도호텔의 사무실을 제공하였던 宮川肇가 1934년 4월에 평양철도호텔로 전근가게 되면서¹⁸⁾ 타격을 입었고, 이후 기관지 『ドルメン(dolmen)』은 1935년 1월을 마지막으로 폐간되며, 佐山右左吉, 竹下隆平, 浜田俊象 등 핵심 멤버 몇 명이 연이어 사망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활동은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모임의 장소와 재정적 뒷받침은 宮川肇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수산자본가 香椎源太郎에 기대어 향토박물관인 부산박물관 건립에 치중하지만¹⁹⁾ 결국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부산고고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지역에 분포하는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와 보존, 조사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비록 짧은 기간에 해당하지만 지금은 사라져 버린 전포동패총, 대신동

13) 及川民次郎, 『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 『考古學』4-5, 1933, 139~148쪽.

14) 橫山將三郎,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繩文式系統の朝鮮大陸との關係』, 『史前學雜誌』5-4, 1933, 1~49쪽.

15)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매장문화재분포자료집』, 2001, 29쪽.

16) 橫山將三郎 동삼동 보고서에서는 「…昭和14年(1929년) 늦여름 동래패총을 답사했을 때 及川民次郎씨를 찾아가 수집유물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 南鮮의 소위 즐목문토기 파편을 발견하고, 출토지를 물으니 영선동패총이라 알려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7) 이순자, 앞의 논문, 2008. 182쪽.

18) 大曲美太郎, 『釜山考古會』, 『ドルメン』第3卷 6號, 1934.

19) 김동철, 『부산의 유력자본가 香椎源太郎의 자본축적과정과 사회활동』, 『歷史學報』186, 歷史學會, 2005.

유적, 영선동패총, 청학동패총, 다대포패총 등의 관련 자료는 부산 지역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고고학사에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영선동패총

영선동패총은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1930년대 초반에 이미 산복도로의 개설과 함께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그 위치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현재의 영선동은 바닷가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패총이 입지하기 어려운 곳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 세운 영선동패총 표지석은 현재 최대한 바닷가와 가까운 영선동의 끝 지점에 세워져 있다.²⁰⁾

특히, 영도는 1906년 통감부설치 이후, 부산에 육·해군의 군사시설을 갖추기 위해 절영도를 조차하면서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도면이나 사진촬영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동삼동을 비롯한 영도 내 유적의 위치나 지형 도면과 사진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일제(日帝)는 부산을 식민지 항구도시로 만들기 위해 항만 시설을 서둘러 정비하였는데, 1906년부터 부산세관과 제1기 築港工事が 실시되었으며, 1916년부터 1926년까지 영도매축공사, 1925년부터 1936년까지 남항매축공사 등이 실시되면서²¹⁾ 과거의 지형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것도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영선동패총 표지석은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정황에서 몇 편의 자료에 남겨진 사실을 근거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及川民次郎의 보고서에 의하면,²²⁾ 영도에는 영선동패총, 청학동패총,²³⁾ 동삼동패총 등 3개소의 패총이 있다고 하였으며,²⁴⁾ 横山將三郎의 동삼동패총 보고서에서는 昭和4년(1929년) 늦여름 동래패총을 답사했을 때, 及川民次郎씨의 수집유물 중에 즐목문토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출토지는 영선동패총이라 일러 주었다고 한다.²⁵⁾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영선동패총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20) 필자의 은사이신 심봉근선생님이나 고 김동호교수님으로부터 현재의 표지석이 있는 곳이 아니라 훨씬 산지 쪽인 영선동 로터리 인근지역이라는 말씀을 전해들은 바 있다. 현 지형을 감안할 때 당시로선 선뜻 이해할 순 없었지만,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부산항 지도(1875년 제작)를 구하면서 이러한 의문은 풀리게 되었다. 현재 지도와 겹쳐본 결과 현 표지석 위치는 당시 바다였으며, 영선동 로터리 인근지역이 당시 바닷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김정남, 『한말·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성』, 『영남사료관』, 2007.

22) 及川民次郎, 앞의 논문, 1933, 139쪽.

23) 아리미쓰(有光教一)의 영선동패총 성격이나 유물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청학동패총에 대한 언급이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빗살문토기, 注口土器를 비롯하여 토제 어망추 등과 함께 골각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24) 이 중 청학동패총은 현재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채 사라져 버렸다.

같이 浜田俊象씨가 1933년도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1929년에 이미 及川民次郎이 이 유적을 발견하고 유물을 채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적의 위치와 당시 정황은 有光教一의 자료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²⁵⁾ 영선동패총은 패총의 위치는 부산항 내 절영도의 西北쪽에 해당하는 瀛仙町 1520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본 구릉의 북쪽에 해당하고, 부산도시계획의 매립 이전의 원 해안선까지 대략 1町半 정도의 거리에 해당한다. 도로 개착 과정에서 약 100평의 넓이에 새하얀 패각이 노출해 있었으며, 이 지점의 외에도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30칸 지점인 瀛仙町 1552번지와 1612번지에 이르는 약 120평의 지점에 걸쳐 패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도 1).

橫山將三郎교수의 동삼동패총 보고문에 인용된 영선동패총은 후자에 해



도 1. 1875년 측량도를 참고로 한 영선동패총의 위치

25) 橫山將三郎,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 『史前學雜誌』 5-4, 1933, 1쪽.

26) 有光教一, 앞의 논문, 1936, 59쪽 ; 앞의 책, 1962, 63~64쪽.

당하며, 有光教一이 조사한 곳과는 지점이 다른 셈이다. 아리미쯔는 양 지역을 같이 조사한 결과, 두 곳은 서로 유사한 개체에 퇴적된 대동소이한 패층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 일대에 형성된 100평 정도의 유적 중, 여기저기를 조금씩 파서 시굴한 결과, 신설도로가 산록부를 따라 개착된 때문에 본 패층의 층위는 사면의 말단부 쪽이 특히 깊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점차 얇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이 사면의 높은 부분은 민가 등이 위치하는 관계로 조사할 수 없었으며, 그 상부는 이미 알 수 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한다.

패각층은 가장 얇은 곳이 약 20cm, 가장 깊은 곳인 약 50cm 두께이며, 바닥층은 남쪽의 높은 곳에서 북쪽의 낮은 곳으로 완만히 경사진 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당시 이미 표토는 도로를 통과하면서 상당한 두께로 깎여 나갔기 때문에 원래의 퇴적 상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출된 부분은 상당한 깊이로 형성된 패층의 바닥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패각층은 적어도 10종에 이르는 패각으로 이루어졌고, 퇴적양상은 상당히 치밀한 편으로 거의 흠이 포함되지 않은 정도의 부분도 있다고 한다.

출토 유물은 전체가 토기지만, 거의 파편으로 패층의 상하에 걸쳐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완형에 가까운 것이나 대형의 파편은 상부에 많고, 전반적으로 출토양도 이부분에 집중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大曲民太郎씨에 따르면 注口附土器는 표토의 바로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리미쯔 일행이 채집한 완형에 가까운 토기는 대체로 표토하 20cm의 사이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점은 겹쳐져 덮힌 상태로 출토된 丸底土器의 경우, 그 아래에 1개체의 말의 뼈를 덮고 있는 것이 있으며, 또한, 소형토기가 직경 40cm 이상의 대형토기 파편 위에 바르게 올려진 채로 출토한 점도 특이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모두 표토하 20cm 가량 지점에서 서로 10cm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이며, 현재까지 한반도 내 말의 출토 사례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적어도 25개체 분 이상의 형태가 판단되는 토기의 파편을 채집하였는데, 형태, 문양 등 특징적인 것들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선별적으로 채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파편은 소위 즐목문토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며, 鱗骨文(어골문)을 곁친 爬刻文樣(새김문) 등이다. 문양은 모두 구연부 혹은 그 가까이에 상단부에만 시문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의 토기를 현재 학계에서는 『영선동식토기』로 명명하고 있다. 패층 및 토양은 매우 치밀하고 단단한 편이어서 채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토기, 수골 및 패각의 외에는 기술할만한 채집품은 없었다고 한다.

이를 요약하면, 영선동패총은 低地에 위치하는 패총의 예로 산록 말단에 조성된 것이다. 또한 토기는 풍부하게 포함된 반면 석기 기타의 유물은 포함되지 않은 순수유적으로, 편년상 전기 단계에 속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이 이후에 간행된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를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²⁷⁾

당시 조사는 채 하루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及川民次郎씨를 포함한 부산고고회에서 조사한 곳에서는 타제 및 마제석부가 발견되었고, 편인석부도 있어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 지점에는 회청색도질토기, 적색 素燒土器(적갈색연질토기), 얇은 타날문토기가 혼재하고 있으며, 角形의 把手도 채집되었다고 하는데, 설명에 따르면 그 성격은 김해패총의 토기군에 유사한 편이다. 이러한 토기군과 혼재한 상태라면, 반출했다고 하는 석기 중에는 즐목문토기의 시기보다 이후의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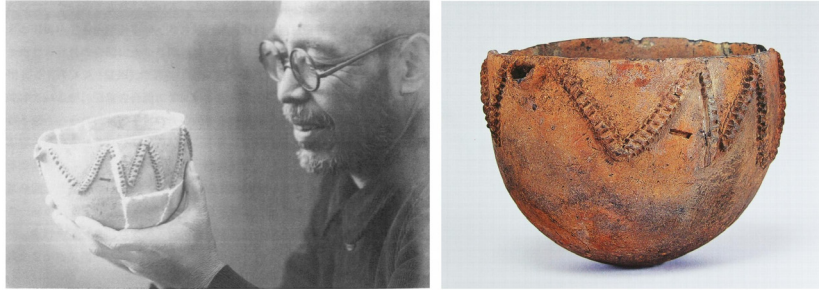
따라서 이들이 채집한 片刃石斧나 마제석부는 신석기시대의 것이 아니라 삼한·삼국시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橫山將三郎의 동삼동패총 보고에 나타나는 영선동패총 출토 유물 중에 타제석기 수 개와 마제석부 1개를 들고 있는데, 아리미쯔 조사 지점과 관련하여 석기의 수가 적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Ⅲ. 유물의 유입경위와 내용

이상 살펴보았던 부산고고회의 활동과정에서 출토된 大曲美太郎 채집의 용기문토기와 有光教一교수의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영선동패총 출토 유물은 잘 알려진 인근의 동삼동패총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동삼동패총은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방 이후 10여 차례의 정식조사를 거치면서 방대한 자료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과 동삼동패총유물전시관을 비롯하여 많은 대학이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고고회 조사 당시의 자료들은 사실상 학사적인 의미를 제외한다면 현재 자료로서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²⁸⁾ 그러나 영선동패총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현재는 완전히 없어져버린 유적의 유일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신석기시대 전기 단계의 단순유적으로 밝혀지면서, 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영선동식토기」라는 형식명

27) 有光教一, 앞의 책, 1962, 63~68쪽.

28) 부산고고회 조사에서 출토된 동삼동패총 유물 또한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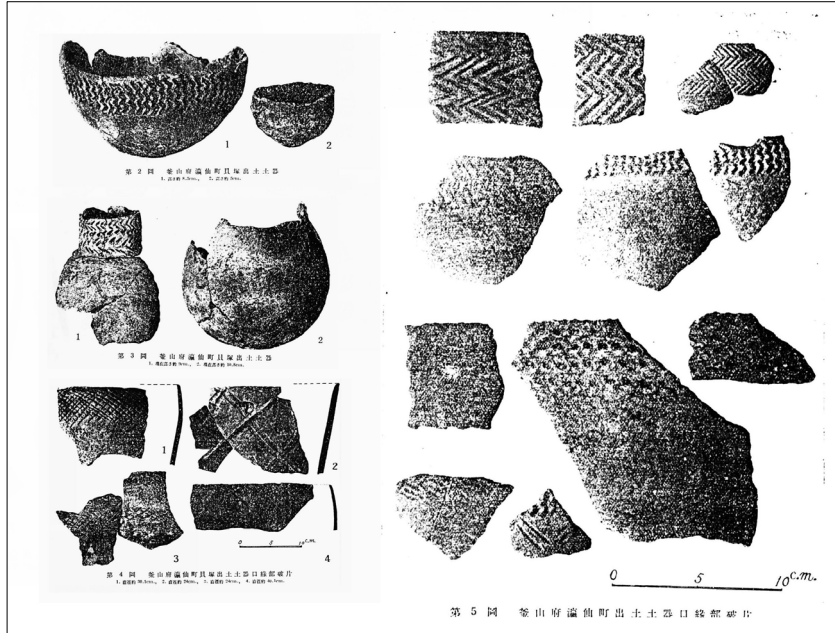
도 2. 영선동패총 출토 용기문토기를 든 大曲美太郎과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용기문토기

으로 불리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유물들은 어떠한 과정으로 동아대학교에서 소장하게 되었을까? 장기간 동아대학교 박물관장직을 수임하셨던 심봉근선생의 전언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해방 이후 일본으로 반출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에게 이 토기를 맡겼는데, 한국전쟁 당시 해외로 유출되기 직전에 동아대 영문과 모교수의 중개로 동아학숙 설립자 석당 정재환 선생께서 구입했다.”고 한다.

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은 부산고고회의 핵심 멤버이자 동아대 소장 용기문 토기의 주인공인 大曲美太郎의 행적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최근 학계의 요청에 따라 大曲美太郎과 함께 한 그의 자제가 부친을 추도하면서 그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²⁹⁾ 이에 따르면 부산고고회가 사실상 활동을 접은 후에도 大曲은 계속 부산에 거주하면서 일본 패망 직전인 1945년 6월 30일 부산도서관장직을 맡게 된다. 이 당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소장한 서적 상당수도 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 육군행정본부에서 大曲의 서적, 자료 등을 引揚運送船에 실어 보낼 것을 제의받지만, 그는 이것을 거절하였다. 언젠가는 독립된 한국으로 자유롭게 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에도 중학생인 아들과 함께 남아, 10월 26일까지 계속 관장직을 수행하였지만 美軍政釜山府에 의하여 한글로 된 해임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인은 계속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에 상당한 인심을 얻었던 인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金文甲이라는 사람과 그 일행이 찾아와 조국의 역사고고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 때 『靑丘史學會』라는 명칭을 붙여 상당한 서적과 자료 일부는 건네고, 일부는 기

29) 大曲敦, 「父 大曲美太郎と釜山考古會」, 『倭城の研究』5, 2002, 133~140쪽.



도 3. 有光教一이 보고한 영선동패총 토기

증,³⁰⁾ 또 일부는 보관을 위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6년 2월 11일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당시 소지품은 현금 1인당 1000엔까지, 소지품은 양손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으로 제한되었고, 그 이상은 모두 몰수되었다고 한다. 당시 자료가 모두 한국에 남게 된 결정적 이유로 볼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당시 부산고고회의 자료들은 大曲美太郎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중요도서와 유물들은 기증의 형식, 또는 언젠가 돌아 왔을 때 찾기 위하여 金文甲에게 보관하기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혼란한 상황에서 매물로 떠돌다 일본으로 유출되기 전, 이 가치를 파악한 동아대 영문과 교수의 중재를 통하여 당시 석당 정재환총장이 이를 구입하면서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³⁰⁾ 아마 이후 한국의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의 기관들이 정식으로 들어서면, 그 때 기증을 위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유물의 편년과 성격

앞서 검토한 영선동식 압인문토기는 1930년대에 일본인 아리미쯔(有光教一)가 부산 영선동패총 일대에 산복도로 조성공사과정에서 수습 조사한 토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시 패총 상부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층위관계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보고된 자료를 참고한다면, 모두 신석기시대 전기 단계의 것들로 판단된다. 이 당시 수습된 유물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³³⁾에 일부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토기는 원저 기형을 기본으로 鋸齒狀의 굽고 독특한 기법으로 부착된 注口附 용기대문토기, 유사용기문, 압인어골문양, 刺突文, 그리고 각종 침선문양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대체로 구연부 끝에는 口脣刻目文이 많이 나타나는 점과 압인어골문양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조기말 단계의 용기문토기와 결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계에만 나타나는 波狀口緣, 注口토기 등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이 문화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교류과정에서 일본 조몽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영선동식압인문토기의 분포범위는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의 양양 오산리, 강릉 지변동유적에서는 동시기의 관련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³²⁾ 직접적인 유물은 서해안의 서산 휴암리,³³⁾ 서천 장암패총,³⁴⁾ 남쪽으로 제주도 일대 유적³⁵⁾과 대마도의 누카시유적,³⁶⁾ 메오포이시(夫婦石)유적³⁷⁾을 거쳐 일본 규슈(九州) 서북지역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규슈(九州)지역의 소바다(曾畑)식토기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본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³⁸⁾ 일반적으로 기형과 문양 등 여러 가지 특징상 이전 단계의 용기문토기와는 계통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토기의 기원과 관련하여 히로세 유이찌(廣瀨雄一)는 남부지역 전기 토

31) 임학중, 『南海岸 新石器時代 初期의 土器文化에 대한 一考察』,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8쪽.

32) 강릉대학교박물관, 『江原 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1990.

33) 국립중앙박물관, 『休岩里』, 1990, 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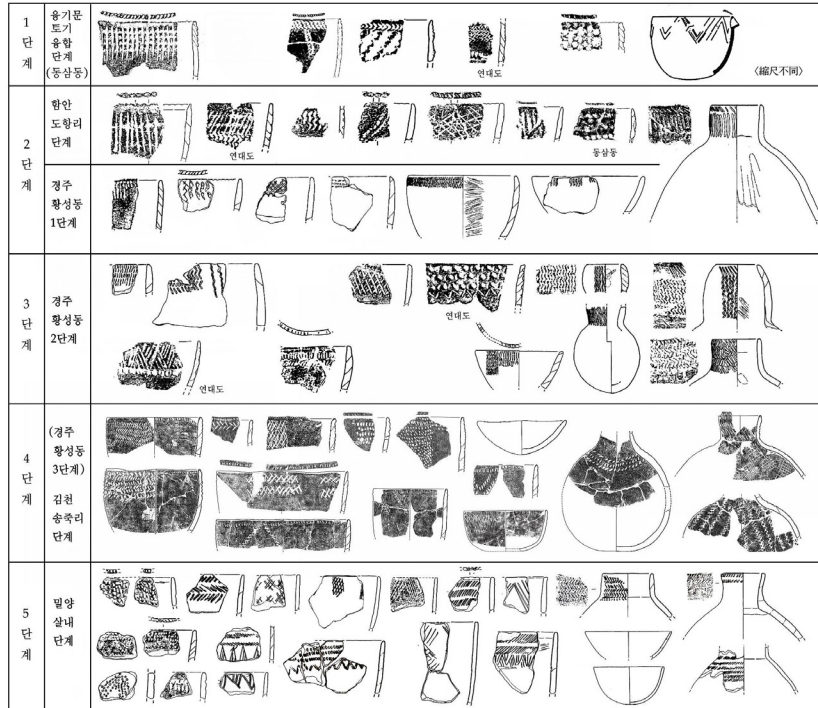
34) 충남대학교박물관, 『舒川 長岩貝塚』, 2008, 33쪽.

35) 오연숙, 『제주도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제주도 신석기 문화의 형성과 전개』, 신석기학회, 2004, 55쪽.

36) 坂田邦洋, 『櫛目文土器の新資料』, 『大馬風土記』11, 1979.

37) 長崎縣教育委員會, 『長崎縣埋藏文化財調査集報』15, 1992.

38) 江坂輝彌, <朝鮮半島櫛目文土器文化と西九州地方縄文文化前期の曾畑式土器文化との關聯性について>, 『考古學ジャーナル』128, 1979. 8~9쪽.



도 4. 영선동식토기의 편년

기의 편년을 시도하면서, 압인문은 영선동1식 자돌문에서 발전한 것이며, 이 자돌문은 오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지역 신석기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³⁹⁾ 이후 오산리유적의 자돌문토기가 기존 용기문토기의 기형과 문양배치의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면서 동북지역의 자돌문이라는 시문방법만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남해안지역으로 파급되어 영선동1식과 같은 자돌문토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보다 구체화된 견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⁴⁰⁾ 이와 같이 용기문토기와의 이질적인 성격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기문토기 말기에 한반도 동북지역으로부터 자돌문계토기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역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⁴¹⁾ 그러나 동북지역에서 자돌문토기를 주체로 하는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고, 동해안지역 자돌문토기의 문양구성은 남해안지역 용기문토기에서도 나타나고

39) 廣瀬雄一, 『櫛目文土器前期の研究』, 『伽倻通信』13·14, 1985.

40) 김장석, 『鰲山里土器の研究』,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60~65쪽.

41) 宮本一夫,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121, 朝鮮學會, 1986; 하인수, 『영선동식토기 소론』, 『영남고고학』21, 영남고고학회, 1997, 1~20쪽; 田中聰一, 『韓國 中西部地方新石器時代 土器文化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268~273쪽.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문과 결합되는 압인어골문 기법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뚜렷한 근거를 가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문화의 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편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각자의 기원론에 입각한 형식학적 계통론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면이 없지 않다. 즉 층위나 공반관계에 의한 분석이 도외시 되었기 때문인데, 최근까지 조사된 유적을 살펴보면 편년적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남해안 패총유적 중에서는 용기문과 결합되는 압인문토기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도항리나 황성동, 송죽리, 살내유적 등 내륙지역에서 확인된 유적들은 유물의 공반관계나 성격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편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함안 도항리유적의 경우⁴²⁾는 말기 용기문토기의 특징이 계승되는 단순유적이며, 김천 송죽리유적⁴³⁾의 경우는 압인어골문양의 소멸과 함께 침선문양 중심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경주 황성동유적⁴⁴⁾의 경우는 도항리유적과 송죽리유적의 특징을 공유하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토기들이 나타나는 등 3단계로 상대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밀양 살내유적⁴⁵⁾의 경우는 중기 단계의 대표적 구연부 문양인 단사침선문양을 주체로 각종 침선문양이 나타나며, 밀집자돌문양이 등장하는 등 중기 초반으로 편년될 수 있는 유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 특징에 따라 5단계로 시도한 편년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용기문토기와 결합되는 단계이며, 구연부 점토띠를 돌출시킨 후 아래로 내려가어 평행용기문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유사용기문토기가 등장한다. 동체부 하단에 둘러진 용기선문 상단에 거치상(鋸齒狀)의 침선문양이 나타나거나 작살형 용기대문에 압인어골문양이 부가되고 있어 압인문 초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단계는 함안 도항리유적 단계로 유사용기문의 흔적은 약해지면서 수직 혹은 사선으로 내려 그은 것들과 함께 압인어골문양이 부가되기도 하며, 용기문은 사라지면서 조압문(爪押文)이라는 새로운 기법이 등장하여 거치상의 용기효과를 계승하고 있다. 유사용기문 바탕에 자돌이나 격자침선문이 새겨지기도 하며, 압인어골문양은 1단계와 같이 구연부에만 시문되는데 비교적 굵고 짧은 편이다. 1단계와 큰 시기 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는 경주 황성동 2단계에 해당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남해안지역에서

42) 경남고고학연구소,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지역 시굴 및 발굴조사』, 2002, 52~54쪽.

43)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김천송죽리유적 I』, 2006, 209~216쪽.

44)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경주 황성동 267유적』, 2002, 44~63쪽.

45)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밀양 살내유적』, 2005, 30~292쪽.

나타나는 전형적인 압인어골문토기 단계이다. 앞 단계에 비하여 폭이 좁은 시문 구를 사용하여 복잡한 어골문양 효과가 나타나며, 시문폭도 확대되고 있다. 전단계의 점토띠 접합흔적은 완전히 사라지며, 삼각집선문양이나 격자문 등 각종 침선문양도 공반된다.

4단계는 김천 송죽리유적 단계로 경주 황성동유적의 3단계에 해당한다. 압인어골문의 경우, 압인기법이 거의 사라지면서 대신 짧은 침선을 이용하여 어골문을 시문하거나 상하간에 약간의 간격을 띄운 자돌어골문(刺突魚骨文)이 나타나면서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돌기법과 침선문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짧은 격자문대(格子文帶)가 다단(多段)으로 배치되거나 거치상(鋸齒狀)의 침선문 위에 짧게 그어서 마치 철책선과 같은 문양, 월계수 문양 등 다양한 기법의 문양이 많은 점에서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구순각목문이 구연부 내외면 끝 부분에 시문되거나 구연 내면에 문양이 시문되기도 하고, 파상구연토기가 나타나는 등 일본 조몽문화의 영향을 받은 느낌을 주고 있다.

5단계는 밀양 살내유적 단계로 압인어골문양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가는 침선으로 어골문양이 시문기도 하지만 그 수는 급격히 감소한다. 구순각목문의 전통도 거의 사라지는 단계이다. 구연부 문양은 단사집선문양이 중심을 이루고 자돌문이나 삼각집선문, 격자문 등도 공반되지만 모두 가는 침선문으로서 중기 단계 남해안지역의 태선침선문 기법과 구별된다. 구연부 단사집선문양 아래에 거치문이나 삼각집선문과 같은 부기문양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중기 단계의 특징을 보이면서 동시에 전기 단계의 퇴화된 특징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영선동패총 출토유물은 여러 단계로 세분이 가능하며, 제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선동패총 출토 유물은 패총을 중심으로 상하에 걸쳐 출토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략 3단계 정도의 시기차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도 4의 편년표를 참고한다면 영선동패총 출토 유물은 주로 1~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단계의 절대연대는 유적의 사례가 적기 때문에 다소 불확실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전기 전반 단계로 판단되는 동삼동패총 3호주거지에서 측정된 BP 5,640±70의 연대와 전기 후반에 해당하는 밀양 살내유적(BP 4,960±40)이나 목도유적 4층(BP 4,910±130)의 경우, 그리고 동해안 오산리C지구 1호 주거지에서 측정된 용기문토기의 연대 BP 5,751±24(BC 4,610년)를 참고한다면 영선동 식압인문토기로 대표되는 전기 단계는 대략 기원전 4,500년~기원전 3,500년 무

렵으로 추정된다.⁴⁶⁾

표 2. 전기 영선동식토기(압인문토기) 관련 유적의 탄소연대

유적	탄소연대(b.p.)	보정연대(b.c.)	출 전
동삼동(7층)	5650±70	4480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발굴조사보고서(부산박물관 2007)
	5180±70	4000	
동삼동(3호 주거지)	5640±90	4450	
	5540±40	4395	
밀양 살내(13호 수혈)	4960±40	3740	밀양 살내유적(경남발전연구원 2005)
하동 목도(4층)	4910±130		목도패총(국립진주박물관 1999)

V. 맺음말

이상 현재 보물 제597호로 지정되어 있는 동아대학교 소장 영선동패총 출토 용기문토기를 비롯한 관련유물의 발견 경위와 당시 사회적 상황, 그리고 부산고고회가 창립되면서 문화재 보존활동 내용과 이 유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 추적과 함께 가치 및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이 유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와 유적의 성격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토기는 전기 단계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규명되면서 현재 학계에서는 「영선동식토기」라는 고유 명칭이 붙여져 널리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완전히 없어져버린 유적의 유일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고고학의 태동기에 일본인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에 의한 보존활동 과정에서 수습된 이들의 보관 유물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것은 너무나 다행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차지하는 학사적 의미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물 제597호로 지정되어 있는 용기문토기는 기법에서도 독특함을 나타내고 있다. 굽은 점토띠를 덧붙여 연속 N자상으로 붙인 것인데, 접합방법에 있어서도 마치 지네 모양으로 점토 끝 부분을 도구로 눌러 시문한 것이다. 현재까

46) 하인수, 『韓半島 南部地域 櫛文土器研究』, 民族文化, 2006, 179~182쪽.

지 이러한 기법으로 용기문양을 시문한 것이나 주구가 부착된 것은 이 자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시 보고 내용 중 겹쳐져 덮힌 상태로 출토된 환저(丸底)토기 아래에 1개체의 말뼈를 덮고 있다는 보고 내용은 이 시기 한반도에 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영도가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명마 사육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⁴⁷⁾ 그 연원이 신석기 시대 이른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형토기가 직경 40cm 이상의 대형토기 파편 위에 바르게 올려진 채로 출토한 점은 당시 제례와 같은 의례행위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이들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2011년 12월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되었던 한림 정수봉선생 10주기 추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동아대박물관 소장 영선동패총 출토유물의 가치와 성격」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 투고일 2012년 8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3일 ▣

⁴⁷⁾ 신라 성덕왕 때 왕이 김유신의 손자 金允中에게 절영도의 말 1필을 하사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 각종 문헌에 절영도의 말에 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三國史記』卷43, 列傳3, 金庾信傳: 「日晩告退賜 馬一匹羣 臣缺望而已」)

참고문헌

<국내>

-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 창출』, 서경문화사, 1977.
- 강릉대학교박물관, 『江原 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1990.
- 국립중앙박물관, 『休岩里』, 1990.
- 김장석, 『鰲山里土器의 研究』,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 임학중, 『南海岸 新石器時代 初期의 土器文化에 대한 一考察』,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하인수, 『영선동식토기 소론』, 『영남고고학』21, 영남고고학회, 1997.
- 田中聰一, 『韓國 中西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文化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매장문화재분포자료집』, 2001.
- 경남고고학연구소,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지역 시굴 및 발굴조사』, 2002.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경주 황성동 267유적』, 2002.
- 오연숙, 『제주도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학회, 2004.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밀양 살내유적』, 2005.
- 김동철, 『부산의 유력자본가 香椎源太郎의 자본축적과정과 사회활동』, 『歷史學報』186, 歷史學會, 2005.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김천송죽리유적』, 2006.
- 하인수, 『韓半島 南部地域 櫛文土器研究』, 民族文化, 2006.
- 김경남, 『한말·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성』, 『영남사료관』, 2007.
- 이순자, 『1930년대 부산고고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고찰』, 『역사학연구』33, 전남사학회, 2008.
- 충남대학교박물관, 『舒川 長岩貝塚』, 2008.

<국외>

- 藤田亮策, 『東萊의 甕棺出土』, 『靑丘學叢』2, 1930.
- _____, 『朝鮮櫛目文土器의 分布に就いて』, 『靑丘學叢』2, 1930.

- 及川民次郎, 『東萊貝塚』, 『ドルメン』24, 1933.
- , 『南朝鮮牧ノ島東三洞貝塚』, 『考古學』4-5, 1933.
- 横山將三郎,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繩文式系統の朝鮮大陸との關係-』, 『史前學雜誌』5-4, 1933.
- 大曲美太郎, 『釜山考古會』, 『ドルメン』3-6, 1934.
- , 『釜山の古蹟及遺物』, 『教育研究調査物』14, 1936.
- 有光教一, 『朝鮮釜山府瀛仙町の一貝塚に就いて』, 『人類學雜誌』51- 2, 東京人類學會, 1936.
- 及川民次郎, 『内鮮公學を基調とした學校經營の理論と實際』, 吉田弘文堂, 1941.
- 藤田亮策,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1948.
- 有光教一,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3, 1962.
- 江坂輝彌, 『朝鮮半島櫛目文土器文化と西九州地方繩文文化前期の曾畑式土器文化との關聯性について』, 『考古學ジャーナル』128, 1978.
- 坂田邦洋, 『櫛目文土器の新資料』, 『大馬風土記』11, 1979.
- 廣瀬雄一, 『櫛目文土器前期の研究』, 『伽倻通信』13・14, 1985.
- 宮本一夫,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121, 朝鮮學會, 1986.
- 長崎縣教育委員會, 『長崎縣埋藏文化財調査集報』15, 1992.
- 吉井秀夫, 『釜山考古會とその活動について』, 『倭城の研究』5, 日本城郭談話會, 2002.
- 大曲敦, 『父 大曲美太郎と釜山考古會』, 『倭城の研究』5, 日本城郭談話會, 2002.

Abstract

A Review of Excavated Yeongseon-dong Shell Mounds Possessed by Dong-A University Museum

-through this Activity of Busan Archaeology Meeting in 1930-

Lee, Dong-ju

The pottery with applique decoration designated as Treasure No. 597 and Possessed by Dong-A University Museum is known to be excavated in the Yeongseon-dong Shell Mounds of Busan. Also it has a very unique features among other examples of Neolithic pottery in Korea because it's difficult to find examples.

In addition, various relics excavated from the same collections was housed, but according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investigation or this remains uncertain even of the small intestine tend inspector currently. Moreover, the artifacts excavated shell mounds of the same Yeongseon-dong has already been compromised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period.

Since Chosun Residency-General is installed by Japanese Empire in 1906, even while occupying Jeolyoung island to equip the military facilities of Army and Navy in Busan. Drawing or photo shoot had been strictly limited by reason of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this is because why there did not leave any of the map.

In addition, even at the time of the terrain completely changed by a number of aberrations in the process of reclamation work , one of the reasons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location. It remains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enough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lics excavated, but its value would have to be detracted if you don't grasp the academic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iscovery details and the nature of relics and artifacts, etc.

In this regard, this paper was investigated on the nature and context of Busan Archeology conference activities discovered and then examined the remains, the corresponding to the dawn from archeology at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Korea, and through the late 19th century map, with localization of the ruins can't be found even a trace, and more the exact account of the possession by Dong-A University Museum, and more the nature of Artifacts.

Key Words : Busan Archaeology Meeting, Neolithic, Pottery with Applique Decoration, Yeongseon-dong Shell Mounds